



정읍시, 동진천에 어린 뱀장어 3만 마리 방류

정읍시는 11일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관내 주요 하천인 동진천 일원에 어린 뱀장어 3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칠보면민과 수산업경영인 정읍시 연합회 원, 명암사 주지 스님과 신도 등 60여 명이 참여해 자연 생태계 회복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 현장에서는 명암사에서 준비한 숙 절편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마련한 음료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돼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다.

시는 방류된 어린 뱀장어들이 자연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 환경이 우수한 지점을 골라 방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방류를 거쳐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풍성한 수산 자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인월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행복나눔꾸러미 전달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나눔꾸러미' (15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꾸러미는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마련된 150만원 상당의 든든꾸러미 15가구, 취약아동 대상 튼튼꾸러미 15가구에 협의체 위원과 면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김중선 인월면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전하며 "이번 전달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전달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LED전광판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1일부터 1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및 보행자 보호의무 교통법규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장수읍 관문인 보건의료원 앞 대형 LED문자전광판을 활용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기쉽게 제작하여 증점 홍보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똑똑한(talk talk heart) 달빛장터 성료

지역 16개 단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정읍 특산물 판매·현장 체험행사 '호응'

정읍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지역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행사 '2026년 똑똑한(talk talk heart) 달빛장터'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달빛장터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체의 우수 제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판로 확대를 돕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내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장터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콩나물, 모시떡, 청국장, 정읍샌드, 귀리 가공품, 전통 장류, 감말랭이 등 정읍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와 다양한 수공예품, 생활 제품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제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생산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장터는 제50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연계해 운영한 덕분에 독특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이뤘다. 다채로운 현장 행사와 체험 과정이 더해져 가족 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일부 참여 업체는 준비한 제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의 장터가 열려 반갑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해 가족과 함께 즐기기가 좋았다"라면서 "다음에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똑똑한 달빛장터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대표 문화 장터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확대해 정읍 대표 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 관계자는 "똑똑한 달빛장터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대표 문화 장터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확대해 정읍 대표 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소방서 여성이용소방대, 어버이날 맞아 배식 봉사

임실소방서(서장 김삼곤)는 임실소방서 여성이용소방대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실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여성이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약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정성껏 배식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대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체험활동 진행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9일 주말 체험활동으로 부안군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봉사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플로깅(Plogging)이 한 단계 진화한 데이터 플로깅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타시티' 웹 활용을 통해 자신이 주운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고 카테고리(담배꽂이, 일회용 컵, 플라스틱 등)별로 분류해 기록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구역을 나눠 쓰레기를 줍고 데이터 기록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의 주체로서 데이터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성료

남원소방서는 11일, 남원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에서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소방공무원 체력 검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는 총 20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출동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아래 근무조별로 전·후반부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원거리 119안전센터 직원을 왕복달리기 조에 우선 배정하는 등 신속한 근무 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했다.

측정 종목은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쌍발달리기(20m 셔틀런) 등 총 6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호성신협,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19곳 방문해 마음 나눔

전주호성신협(이사장 김용식)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전주호성신협은 지난 7일 신협 객장과 전주시 덕진구 소재 경로당 19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케이션 떡을 전달하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이사장과 우영란 이사, 강석권 차장은 직접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케이션 떡을 전달했다.

전주호성신협은 평소에도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축제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용식 이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주호성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협으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호성신협은 올해 4월 말 기준 자산 1,005억 원, 조합원 수 6,095명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어부바 멘토링, 소상공인 어부바플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